

천식환자에서의 음성의 질 평가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

한 명 월* · 남 순 열

천식환자의 경우 증가된 기도내 저항 및 분비물 그리고 흡입 스테로이드제에 의해 음성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. 이 연구에서는 경증 혹은 중등도의 천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 방법으로 음성의 질을 평가하였다. 본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천식으로 진단받고 흡입 스테로이드제제를 포함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6명(남자 13명, 여자 23명)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인 음성 장애지수, 객관적인 음향학적 검사 및 공기역학 검사를 시행하였다.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51.7세였고 평균 유병기간은 77개월이었다. 24명의 환자에서 알레르기 비염 혹은 비염 등의 비증상이 있었고 4명의 환자가 아스피린 과민증을 가지고 있었다. 환자들의 50%에서 주관적인 음성 장애를 호소하였고 음향검사상 F0는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(M: 119.3±23.7, F: 191.9±25.9). Jitter와 Shimmer는 각각 61%, 50%환자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. MPT는

46%의 환자에서 감소해 있었고 MFR과 Psub는 각각 32%와 22%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. 그리고 스트로보스코피 검사에서는 점막의 변화(50%)부터 상후두의 파기능(40%), 후두 낭종 및 접촉성 유두종(13%) 등 다양한 이상 소견을 보였다. 주관적인 음성 장애 지수에서는 25%의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(30점)의 장애를 호소하였다. 환자들의 음향검사, 공기역학 검사 및 음성 장애지수 모두 환자들의 천식 유병기간이나 흡입제 사용기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.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50%이상에서 객관적인 음향 검사 및 공기역학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였다.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천식환자의 경우 음성 변화여부를 관찰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호흡 운동 및 음성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음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